Catholic
평화주보

제1102호
2019년 12월 22일(가해)

대림 제4주일

그림 | **오틸리아** 글씨 | **아미카**

입당송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이사 7,10-14

화답송 시편 24(23),1-2.3-4ㄱㄴ.5-6(◎ 7ㄷ과 10ㄷ 참조)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2독서 로마 1,1-7

복음환호송 마태 1,23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복음 마태 1,18-24

영성체송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림 | **홍 세레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최봉용 베드로 신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앙인이든 아니든 온 세상이 기억하며 기뻐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 이 시기에 울려 퍼지는 구세군 종소리와 수많은 자선 단체의 행사들은 추운 계절을 따뜻하고 더욱 기쁘게 가꾸어 갑니다. 또한 거리에서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더욱 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위기에 취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취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흔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답을 합니다. 물론 이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심은 굳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며 인격적 만남을 가지셨던 것일까요? 이 강생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이라는 정의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함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꺾어서 억지로 당신을 따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의 신적 권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려고 하느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음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느님의 딜레마일 것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딜레마의 해답이 직접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하심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인격적 만남을 통해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동하여 당신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적 들었던 해와 바람이 한 사람의 코트를 벗기는 내기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한 바람이 아니라 더움을 스스로 느끼고 코트를 벗기었던 햇볕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악령 들린 이들을 고쳐주심은 당신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동하여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한 그분의 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한 명의 마음도 꺾지 않으시려는 그분의 마음이 담긴 곳이 바로 "구유" 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성탄 시기에 구유 경배 예절을 끊임없이 바치며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묵상합니다. 이번 성탄 때에 이런 지극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쁘고 행복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보아요

청년 여러분, 가톨릭교회의 **궁금증**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서울대교구 청년부 홍보부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쓸교잡[알아두면 쓸데 있는 교회 잡학상식]**인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세요.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를 쉽게 옮겨 놓은 책 <DOCAT>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복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이어서 주변 환경을, 마지막으로 세상 전체를 바꾸어 볼까요?

12.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정 무역

고통받던 라자로의 부활

저는 어떤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 살던 라자로입니다. 저의 몸은 종기투성이였고, 심지어는 개들까지 와서 제 종기를 핥곤 하였죠. 더욱이 저는 먹을 것이 없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다가 죽게 되었고, 이후 천사들이 저를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저승을 보니, 호화로운 삶을 살던 부자는 불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지가 뒤바뀌어 버린 지금, 부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초를 형제들이 겪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청년으로서 우리는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 나아가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나요?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공정 무역,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공정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DOCAT 솔루션

공정 무역은 정의의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무역입니다.

다양한 공정 무역 기구들은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 관계를 조정합니다. 그들은 생산자, 소작인과 농장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 무역에서 더 나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장 무역 기구들은 무역 상대 사이의 소통을 의무화하고, 생산 과정과 거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도 요구합니다.

공정 무역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DOCAT 솔루션

공정 무역은 이에 참가하는 이들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공정 무역은 먼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생산자에게, 거래 조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종속되지 않도록 기회가 조성됩니다. 생산자들에게는 신뢰할 만한 더 높은 수입의 보장을 위해 생산비 전체를 메우고, 세계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확정된 최저 가격이 그때마다 지불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정한 생산과 임금, 노동 시간, 어린이 노동 금지뿐만 아니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같은 적합한 노동 조건들이 실현되고, 동시에 환경 기준도 준수됩니다.

공정 무역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DOCAT 솔루션

공정 무역은 다양한 지역의 빈곤 퇴치에 공헌합니다.

공정 무역은 빈곤 퇴치를 통해 여러 개발 도상국에서 생산자와 노동자의 생활 조건이 개선되어, 그들은 더욱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고, 종속 관계를 줄이는 데 공헌합니다. 하지만 공정 거래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모든 거래 관계가 공정 무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공동체가 정치적으로 노력하고, 공정 무역에 대해서 효과적인 후원을 해야 합니다.

참조_「DOCAT」 252~255항

DOCAT이 선택한 사회 문제의 명언

누군가 오늘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곳에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

성탄 나무에 "소원을 말해봐"

청년 여러분의 성탄소원은 무엇인가요?
천사에 새겨 보세요♡

청년주보를 만드는 청년들, 보고 있는 청년들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을 보내길...♡
연 로사리아

안 엘리사벳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돕고 싶은 분이 아프신데 완쾌하시고, 더불어 우리 부모님도 계속 건강하셨음 좋겠어요.
김 로사

김 헬레나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조 실비아
주님 안에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새해엔 모두 텀블러를 들고 다녔으면 해요. 더욱 열렬히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제가 되길
최 스텔라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새해엔 더 크게 웃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펭귄뷰 ><
이 아눈시앗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갖고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2020년도 청년주보와 함께 해요.
장 수산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현 베드로

새해를 맞아 다짐한 것을 연말에 후회하지 않도록 한 해 동안 꾸준한 마음 이어가기를 바라요.
강 마리아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최 플로라

아프지 않고 삶에 지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송 미카엘

내 안의 페르소나를 벗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해 보내길 기도합니다. 위기. 돼기. 다시 주님
정 다니엘

2020년 본당회장연수 & 교구상임위

일시 2020년 1월 11일(토)

대상 지구청년연합회 및 본당 회장(대표)

내용 서울대교구 내 각 본당 및 지구 청년 대표로 뽑힌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연수

교육비 무료

신청 12월 24일(화) 14시~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에서 신청

서울대교구 청년생활성가밴드 '유빌라떼' 보컬 모집

모집 분야 보컬(남자)

지원 문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02-762-5071~2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전화 : 02) 762-5071, 2/ 이메일 : mail@2030.or.kr/ 홈페이지 : www.2030.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인쇄 : 가톨릭출판사